

# EBS 특강 ‘보고사가 대학자율인가’

## 모두말씀

---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EBS 대담에 나왔습니다. 뜻밖의 일로 생각되지요. 저는 오늘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국가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첫 번째로 교육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이 성공하면 나라도 국민도 성공하고, 교육이 성공하지 못하면 나라도 국민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역사상 선진국이 된 나라들을 보면 모두 다 교육에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처음에는 엘리트 교육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영향이 커질 때는 교육이 보편화될 때부터, 보편 교육이 실시되고부터 국가가 아주 크게 발전합니다. 이것은 증명돼 있는 것입니다.

국가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찌냐. 대부분 교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한국 교육이 위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한국 교육은 그동안에도 성공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의 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오늘의 성공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해외에 나가 보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찬사가 대단합니다. 대통령 대접 잘 받고 다닙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 성공하고 경제에 성공하고 다 성공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가면 목에 힘주고 대접받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등학생들에 대한 OECD 학력평가에서도 과목별로 다 5위 안에 들어가지요. 대단한 성과입니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교육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기의 원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는 두 번째 위기는 우리의 대학입시 교육제도입니다. 입시제도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상당히 위협하게 하고 있습니다. 3불정책이 말하자면 대학 입시제도에서 세 가지는 하지 마라는 것인데, 이름은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름은 별로 안 좋지만 내용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사회적 흐름들이 계속 있는데, 이 점을 우리가 잘 방어해 나가지 못하면 진짜 우리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질의응답

---

**질 문** ● 3불정책이 과연 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것부터 대통령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 대학입시에서 대학별 본고사를 치는 것을 하지 말아 달라, 금지하는 것

이죠. 두 번째로 학생을 평가하는 데 출신 학교를 고려하겠다, 즉 고등학교에 등급을 매겨서 학생의 학업성적 평가하겠다는 게 고교 등급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여 입학제라는 것인데, 기여 입학제라는 것이 미국 같은 나라에도 일부 있기는 한데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아주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여 입학제는 보기에 따라서는 돈 주고 입학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기여 입학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가지, 본고사 안 된다, 고교 등급제 안 된다, 기여 입학제 안 된다. 해서 3불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이니까 대입 제도에서 '세 가지 규제인' 셈이죠. 대입 제도에 대한 정부의 세 가지 규제, 다른 것은 다 자유이고 세 가지는 규제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편의상 누군가가 3불정책이라고 한 모양입니다.

**질 문** ● 대통령께서도 3불 가운데서 본고사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3불정책 가운데서도 본고사만큼은 부활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본고사는 왜 못 보게 하는 것인가요?

**대통령** ● 대학교가 왜 본고사를 보려고 하느냐, 학생들의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것이거든요.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니까 학교마다 각기 어려운 시험을 내게 됩니다. 어려운 시험을 내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안 가르친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수능방송에도 안 나온 것 계속 나오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 점점 시험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교육 수요가 충족 안 된다고 해서 자꾸만 학원으로 아이들 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외 시켜야지요.

그래서 첫째는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돼 버릴 텐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서 공부를 시킬 것인가, 학원에서만 공부를 다 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 목적에 맞느냐,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느냐, 과연 아이들은 제대로 된 학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

자는 것이지요. 결론은 '아니다' 입니다. 사교육만 넘치게 되면 학부모들은 등이 휘고 아이들은 코피가 터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사당오락. 네 시간 자면 합격하고 다섯 시간 자면 불합격하고, 이게 초등학교 기준이었습니다. 옛날에 중학교 입시 때 얘기거든요. 그 시기에 다 겪어 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입시를 없애고, 고등학교 입시도 없애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게 전부 다 되살아나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뭘 배우냐. 대학교에서 본고사 하는 방식은 주로 주입식 암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교육의 목표라는 것이 창의력 교육 하자는 것인데 학원에서 창의력 교육이 되겠습니까? 인성 교육을 한다는데 학원에서 인성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건강한 민주주의 시민 교육도 해야 되는데 시민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도 죽어나고 학생도 죽어나고, 그 결과 교육은 제대로 안 되고, 경쟁력 있는 학생을 못 키우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결국 학원에 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이 대학교 들어가고, 그것도 모자라 독선생 붙이는 사람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학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교 가는 숫자가 달라서 이걸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에서 이거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심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본고사로 가 버리면 해소는커녕 이제 부잣집,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 사람은 대학교를 보내고 아닌 사람은 못 보내고, 그렇게 해서 몇몇 일류대를 나온 사람만이 한국 내의 모든 요직은 독점하는데, 국제적인 경쟁력은 딱 떨어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질 문**●현재 전형 방법으로도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거지요?

**대통령**●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별력 얘기하고, 대학자율을 얘기하지요. 변별력 얘기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능이 9등급인데 언어영역, 수리영역, 사회영역, 과학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언어·수리·사회 쪽이 사회 계열인데, 세 가지 분야에 다 1등급을 받은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0.15%입니다. 역시 언어·수리·과학 세 가지 다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역시 0.15% 수준밖에 안 됩니다. 0.15라는 것은 천분의 1.5입니다. 만분의 15거든요. 만 명 중에 15명, 거기서 벌써 변별력이 나타나지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신기록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별력이 필요한 것은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수한 학생 뽑겠다는 것은 대학교를 일류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세계적인 대학교 등급을 보면 세계에서 100등 안에 들어가는 많은 대학교들, 그중에서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많은 대학교들이 본고사를 가지고 학생을 뽑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내신평가라고 하는 생활기록을 가지고 주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수능시험처럼 국가가 시행하는 학력고사, 수능고사를 가지고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가 되고 인재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고사가 있어야 변별력이 있다든지,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봐서도 안 맞고, 현재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아마 천분의 일까지의 변별력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백분의 일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십분의 일 정도도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 부려서 천분의 일, 백분의 일 뽑으려고 하지 말고 십분의 일 정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세계 최고의 인재로 만드는 것이 대학교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 문** ● 그럼 3불정책에 대한 불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 대학자율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입시에서 정부의 규제 관여는 많은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마음대로 뽑는 것이 자율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의 자율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우리 헌법이나 민주주의의 정신에 비춰 봐서도 입시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대학자율은 아닙니다. 진정한 대학자율은 의미에서 교수 연구의 자유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지, 입시의 자율이 아닙니다.

문제는 가장 쉽게 뽑겠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입시제도를 보면 전국 학생들을 학력고사 하나만으로 1등부터 맨 마지막 등수까지 (동점은 좀 있지만) 한 줄로 짝 세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기 숫자 맞춰서, 머릿수 맞춰서 1등부터 4천 등까지 딱 끊어서 서울대학교 가고, 그 다음 4천 등부터 만 등까지 끊어서 연·고대 가고,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뽑아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항상 가장 우수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결과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결과로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됐느냐,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시절 우리 대학교가 교육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본고사 아닌 방법으로 선발 과정에 다양성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시 모집도 하고 지방 학생들 우대도 하고, 그 밖에 학력고사를 수능으로 바꾸고 수능에서 여러 가지 평점에 가중치를 두어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화하고 나니까 오히려 대학교의 등급은, 또 다른 이유가 많이 들어 있지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우수성도 높아지기 좋은 학생들을 뽑아 가려는 욕심을 부리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뽑기 경쟁하지 말고 가르치기 경쟁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선진국 일류 대학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우리 부총리께 여쭙 보겠습니다.

**부총리** ● 유럽의 대학들은 공통적으로 대학 자체가 시험을 내서 학생을 뽑아 가

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들이 졸업시험을 칩니다. 고등학교들이 출제해서 채점하고 정리한 졸업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 학생은 제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실력이다.’ 그러면 그것이 대학입학 자격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아주 다른 점입니다. 말하자면 고등학교가 뽑아서 보내는데, 우리는 고등학교는 뭘 가르쳤느냐에 상관없이 대학이 기준을 세워서 뽑아 가려고 하니까, 고등학교가 입시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고등학교에 졸업 자격시험은 없고 우리가 얘기하는 학생 생활기록부를 주로 활용합니다. 미국은 워낙 넓은데다가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통일된 교육과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의 수준을 알기 위해 여러분이 잘 아시는 SAT시험을 치룹니다. 고등학교가 제공하는 학생기록부가 중심이고, 거기다가 SAT를 보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면접을 본다든지 수필을 쓰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의 대학들은 고등학교가 제공해 주는 정보에 주로 의존해서 뽑는 것이 우리하고 아주 다른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만, 학생 입학 선발 때보다 일단 받아들인 뒤에 가르치는 과정에서 계속 선발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적이 모자라면 입학 등록을 받고도 결국 학교에서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입학하고 난 뒤에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은 그야말로 코피 나게 죽어라 하고 밤새워 공부를 하니까 그 대학들은 아주 우수한 인재를 길러 내고 국제 경쟁력이 좋은 것이지요.

**질 문** ●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또 실제로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위 내신이라고 얘기하는 고등학교 자체 평가에 대

해서도 대학교에서는 계속 학력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체 평가해주는 기록에는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친구와 어떻게 사귀며, 가정환경이 어떠한지, 공동체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은 어떠한지, 성격은 어떠한지 등의 많은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특기나 적성 또는 어떤 가능성이 어느 방향으로 열려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학업성적 평가만 중심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성적을 믿는다, 못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결국 역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공부 잘하는 학생만 계속해서 합격시키겠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 자꾸 뽑아다가 시키면 반드시 교육적으로 성공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부를 잘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게 돼 있거든요. 환경이 나쁘고 또 가정환경과 학교, 교육환경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성적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은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환경이 좋은 학생들만 뽑아서 대학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사회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적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시험만 잘 치는 학생의 성적만 가지고 대학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교육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시험 점수만 가지고 뽑으면 결국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성도 반영할 수 없을뿐더러 환경이 나쁜 사람의 경우 교육을 통해서 계층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봉쇄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부를 가지고 볼 때 가난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뽑아야 되고,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뽑고, 지방 학생이기 때문에 뽑고,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적순으로 학생을 끊으려고 내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본인의 역량이라든지 취향, 다양한 능



력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학생부를 가지고 입학 사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유독 성적만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꾸 성적 변별력 내라고 하거든요. 고등학교 학생기록에 성적 외의 많은 변별력을 우리가 드릴 테니까 좀 다양하게 학생들을 뽑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지금 성적은 나쁘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아서 교육시켜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 사회가 많이 배우고 성공한 사람들만 사는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들만이, 그들의 지식들만 앞으로 계속 성공해야 하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건이 나쁘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그들이 나중에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사회를 지향하는데 대학들도 도와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학이 욕심만 자꾸 부리지 말고, 그것도 고작해야 열 개 대학 아닙니까? 열 개 대학이 '제일 잘하는 아이들 싹쓸이해 뽑아 가겠다.' 그것도 '시험 잘 치는 아이들 상위 3만 명만 싹쓸이해 가겠다.' 3만 명이 아니라 2만 명 정도입니까? 그렇게 '싹쓸이해 가겠다.' 그런 방식으로 대학교의 목표를 잡으면 안 되죠.

**질 문**●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고교 등급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를테면 성적만 줄을 지어서 상위 학생 몇 명 뽑는 방식, 그래서 고교 등급제를 해야 된다는 요구,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대통령**●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본고사라는 자체가 시험 선수만 다 뽑아 가겠다는 얘기고, 본고사를 말리니까 이제 내신평가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학력 중심으로 평가하고, 거기다가 등급을 계속 부여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고교 등급제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질 문**●실제로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특목고의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학교와

뭔가 좀 수준이 다른 듯하고 농어촌하고 도시하고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교 등급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 ● 그 또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 획일화돼 있지요. 고등학교 교육이 학교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가질 때 그 고등학교가 어떤 교육목표와 교육이념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했느냐 하는 다양성을 어떤 대학교가 다소 고려하는 것은 별개 문제죠. 그것은 고교 등급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내신평가 과정에서 자율적인 선택으로 학교를 좀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죠. 어떤 특성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평가를 해 주는 경우가 선진국에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교를 전부 일률적으로 등급제를 매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력 중심의, 시험 중심의 사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에 창의력 교육을 붕괴시키고, 주입식 교육, 암기식 교육, 시험밖에 못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 교육 목적에 맞지 않고, 인성 교육에도 맞지 않습니다. 등급제라는 것이 자꾸 시험 중심의 사고인데 그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지금 고등학교는 평준화 정책을 통해서 학교를 강제 배정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등급제가 되면, 학부모들이 결국 고등학교 1등급 학교에 내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국가에서 강제 배정하는 데 대해 불만을 가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일류 고등학교를 보낼 수 없으니까 결국은 고교입시 제도를 부활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가 등급이 생기면 중학교 학부모들은 일류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정부가 못 보내게 하니까 부득이 입시를 부활시켜 줘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시키면 중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시 공부 해야지요. 중학교가 입시

공부를 하면 거기 또 등급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일류 중학교가 생기지요. 1등급 중학교, 2등급 중학교, 3등급 중학교로 나뉘고,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 입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67년에 우리가 중등학교 입시 제도를 없애고 무시험 제도를 만들고 나서 아이들이 신체도 좋아지고 집에 가서 잠도 마음대로 자고 놉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교 교육은 다양성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열린교육이라는 것도 하고 창의력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험 실습하고. 입시 제도가 부활하면 다 없어지고 다시 우리 할 때처럼 외우기 교육 해야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실험 실습 기구가 없어 책 보고 외울 수밖에 없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학교 형편도 좋아지고 아이들도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데, 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시험선수로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 폐해 아시겠지요? 아이들이 또 코피 터지는 일부터 시작되는 악순환의 반복이지요. 고등학교가 등급제 됐는데, 내 아이 1등급 보내고 싶은 학부모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겠습니까? 시험 말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질 문** ●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기여 입학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 돈 많은 사람이 학교에 돈 좀 많이 내 정원 외로 학생 몇 명 더 다니면 그 돈으로 학교에 비싼 실습 기자재도 사고, 가난한 학생들 뽑아서 장학금도 좀 더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후보 때 후보 토론 나가서 괜찮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항의가 빗발쳐요. '노무현 후보 당신은 진보적인 인사인 줄 알았는데, 약한 사람들을 함께 끌어올려서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가는 사회,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줄 알았는데, 돈 있는 사람은 대학에 돈만 주면 들어가게 그 거를 외치냐'고. 그래서 제가 취지를 쭉 설명했죠. 그런데 저희 참모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그 질문 나올지 모르고 저한테 미리 교육을 안 해서 저한테

다시 가르쳐 줘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여 입학제를 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사립 대학교가 몇 개 되겠느냐. 국립인 서울대학교가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사립 대학교 몇 개인데, 돈 내고 들어오려는 사립학교가 몇 개 되겠느냐. 안 그래도 대학교가 특성화, 다양화돼야 되는데 그냥 서열화되고 있다. 그래서 입시경쟁을 더욱더 심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서열화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서열화하고, 또 서열화 속에서 사고방식도 획일화되고 있는데, 사립학교도 서열화되는 결과를 생각해 봤느냐.’, 그래서 제가 뜨끔 했어요. 그 후로 저는 기여 입학제 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국민들의 정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국민들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중산층과 중산층보다 조금 못한 서민들은 ‘내 아이도 대학교 보내야 하는데, 누구는 돈 주고 들어가는, 말하자면 돈 있으면 들어가고 돈 없으면 대학 못 보내는 이런 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기여 입학제에 대해서는 실용적으로 이런저런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굳이 한두 개 대학을 위해서 그런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제도를 우리가 채택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실제로 그거 요구하는 대학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질 문** ● 3불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의 형평성·공정성을 지켜 준다, 그런 말씀을 꼭 하셨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대학이 자율성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통령** ● 거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고는 다 자율이다.

지금 대학교수들 정부 비판하는데 마음대로 하지요? 또 자기들이 교육을 뭘 하든 마음대로 하지요? 대학교 연구에 대해서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대학자유이라는 것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종교를 이유로 자유로운 학문을 할 수 없게 하고, 연구도 못하게 하고, 발표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 인권 의식이 발생하면서부터 교육의 자유가 나온 것이지요. 대학교 자유를 가지고, 대학교가 자기들 살림살이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등록금도 자유이고 입시도 자유이다. 말하자면 교수 사회에서 서로 경쟁도 평가도 안 받고 자유이다, 그런데 평가 안 받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유이라는 것을 그렇게 확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두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나가면 좌측통행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타면 우측 통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자유 시민이지만 자유라는 것은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이고, 그 자유는 그것의 하나입니다. 자유를 너무 확대하고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10개 대학의 선발 자유를 위해서 우리나라 공교육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교육이 거두고자 하는 목표,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교육의 효율도 다 무너뜨리고, 학부모들이 밤 1시, 2시까지 과일 깎아 공부하는 아이들 방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도, 자유의 개념부터가 다르고, 또 자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이익과의 충돌에서 더 큰 이익,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지요.

변별력 문제는 좀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고요. 본고사를 두고 하향평준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제도를 하향평준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굉장히 왜곡한 것입니다. OECD에서 하는 학력평가 대상은 시골에 있는 학생까지 포함해서 평가한 것이지, 서울의 우수한 학생 일부만 뽑아서 평가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방 다 포함한 평균으로 해서 제일 나쁜 과목이 세계 4위 들어가고 5위 들어갑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평균 5위 안에 들어 있고, 해마다 조금 들쭉날쭉하더라도 10위권 아래로 어떤 과목도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 중등 교육은 그만큼 성공시켜 놓았는데, 고등학교 가면 차 차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대학 입시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가장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자꾸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 치고 싶어서 하향평준화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말은 그럴 듯하지만 한국에 하향 평준화된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준화되고 난 다음에 하향평준화된 것이 아니라 상향평준화됐다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 순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교육 여건이 나쁜 고등학교 학생들 전부 배정해서 뽑은 사람들이 있기에 학업 성적이 좋아 졌다는 것은 이미 연구 결과로 검증된 것입니다.

오히려 변별력의 기준을 바꿔 줬으면 좋겠다, 시험 성적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 사람의 인간적 폭이나 가능성,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끌어올려야 될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좀더 윤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좀 공동체적인 그런 변별력을 기준으로 삼아 줬으면 좋겠고, 하향평준화와 같은 것도 않은 얘기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 문**●어느 사회나 요즘 무한경쟁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있고, 인재를 양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랑제꼴이 있어서 따로 엘리트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얼마 전에 어떤 회사 사장을 만났더니 '우리 회사 사원이 3천 명 있는데, 핵심 인력은 15명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대한 인적사항까지 전부, 이건 대외 기밀이다' 라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할 만큼 우수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흔히들

한 사람이 1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영재 교육 코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영재 교육 코스는 우리나라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영재고도 있고 수학영재고도 있고요. 이름을 고등학교로 붙이는지 어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도 그런 코스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얼른 보면 서울대학교가 영재 대학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선발제도 위에서 영재 대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꼭 영재가 필요한 데 가서 일하고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고시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영재가 고시 합격해서 판사 하면 조금 곤란한 사회가 됩니다. 판사는 보통 사람이라야 되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아주 우수한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영재 아니라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재급 수준으로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고등고시 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 가고 그 다음에 취직 잘 되는 순서대로 가지요.

영재 교육은 지금의 입시 제도, 지금의 본고사 제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별다른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부총리님이 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예술 분야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 분야의 영재들은 대학에 갈 때 소위 동계 진학에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영재 교육 얘기할 때 프랑스의 그랑제꼴을 얘기하는데, 그랑제꼴은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교육 제도를 아주 철저한 정예주의 교육 제도로 만들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랑제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영재 교육의 특별한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기본적인 제도를 가지고도 우수한 인재, 특별 분야의 인재들을 기르지요.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와 그 밖에 우수한 몇몇 대학들, 우리나라의 최고 인재들을 확보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을 제대로 기르면 그것이 영재 교육이지, 꼭 그들을 특별한 학교에 따로 모았다고 해서 영재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 문** ●그랑제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게 아니고 특수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아무도 그랑제꼴을 참고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대통령**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영재 교육과 유사한 것으로서 특별히 한 분야를 미리부터 배우는 특수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도 EBS 영어교육방송 채널이 개국했듯이 이제 영어 교육은 보편적인 것입니다만, 옛날에는 어학 교육을 좀 특별한 것으로 봐서 외국어 고등학교 만들어 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가 외국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시 기관화되어 있습니까?

외국어 전문가를 기르는 교육 제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전문가 양성할 생각을 안 하고 입시학원처럼 입시 학교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본고사 하자고 자꾸만 흔들어서 우리 학교의 근간을 오히려 흔드는 세력이 되어 있던 말이지요. 그래서 영재 교육이라는 것이 잘못 왜곡되면 이런 결과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재는 제가 아까 특별 코스를 말씀드렸습시다만, 그 코스는 그 코스대로 가지만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영재는 일반 대학의 교육과정 속에서도 스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수님들이 잘 선발해서 아주 우수한 연구과정에 투입하면 우리 정부가 얼마든지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BK21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장학 제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영재는 본고사 부활하지 않아도 영재 교육에 아무 지장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자꾸 말씀 나눠 보니까 3불이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 ● 사실은 이 정책을 하게 된 이유가 창의력 교육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교육 살리자는 것인데, 연구를 해 봐도 이름을 붙이기가 힘이 들어요. ‘창의력 교육을 위한 세 가지 원칙’, 이렇게 하려니까 좀 이상하고, ‘공교육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원칙’, ‘대학 입시 세 가지 원칙’, 모두 말이 길어서 사람들이 외우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한번 이름을 붙여놓으면 바꾸기도 힘들지요. 어쨌든 불(不)자가 들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불자 든 것 중에서 좋은 게 많거든요. ‘불굴의 투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불편부당’ 이런 것도 있고요.

**질 문** ● 인하대학교 입학처장입니다. 최근 대학은 지역 사회의 낙후된 지역의 발전까지 고려해서 다양한 인재를 뽑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양질의 강의, 연구 등으로 이어지면서 대학 경쟁력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3불정책이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 지금까지 제가 쪽 얘기를 했던 것이 전부 포괄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 일류대학교 중에서 본고사 보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교들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들이 다 본고사 안 보고 세계 최고가 되고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 내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

는 꼭 본고사를 봐야 세계 최고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겠느냐, 그렇게 여쭙고 보고 싶습니다.

**질 문** ● 일본은 본고사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 ● 일본은 그렇습니다. 일본 것도 최근의 것은 본받을 것이 좀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 일본식 중에서 일본 구식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모르는 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 문** ●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대학 내부 비리 문제나 재단의 분규 문제들이 가끔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도 사회적 책임을 함께 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통령** ● 내부 비리는 어디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사킨다고 하듯이 극히 소수의 일부 대학이 비리를 자꾸 저질러서 전체 대학 망신을 자꾸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사학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학 경영의 내부 통제를 해 보자, 그동안 외부 통제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 봤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외부 감사만 가지고는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내부 통제를 해 보자 해서 소위 사외이사 또는 공익이사 제도를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이걸 반대를 하지요.

그런데 비리가 있는 학교도 물론 반대하겠지만 비리가 없는 학교도 사학이라는 데가 신성시 되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넣으려고 하느냐 하는데, 저희 생각엔 일종의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 중에서 내부에 통제 제도가 들어 있지 않은 조직은 없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심지어는 영리 그리고 기업 비밀이 필요한 일반 기업까지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자꾸 그걸 갖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

다. 어쨌든 비리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외부 통제, 외부 감사 철저히 하고, 내부감사 제도가 잘 발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문화를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 한국사회, 지성사회 문화를 좀 윤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자기의 이익을 주장할 때도 사회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들의 눈치를 볼 줄 아는 염치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서 자꾸 높아져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데 좀 염치없다 싶은 일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물론 사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전체 공익을 생각하지 않은 자기 주장만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법으로 금지할 수 없고 우리 사회의 문화가 성숙하게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을 선도할 곳이 어디냐 하면 결국은 대학교, 대학교수, 정치 지도자 등입니다. 요새 정치 지도자도 좀 안 그런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그러나 학교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 같은 것을 학교나 학교 경영하는 분들이 좀 솔선해서 외부감사, 내부감사 가지고 옥신각신하지 말고, 내부감사 제도 같은 것도 수용하고 투명하게 개방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모든 것을 개방하고 권력도 전부 아래로 내려보내고, 하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방하고 하니까, 정치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렇게 해서 5년 어떻게 견뎌 갈 거냐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잘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좀 낮은 게 탈이지만, 내려오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열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한·일회담 협정 기록들, 수만 페이지가 되는 엄청난 분량의 기록인데, 그거 공개 안 하고 있으니까 마치 그 당시 한·일회담 한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은 것처럼 많은 의심들이 있었는데, 공개를 해 놓고 보니까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베트남 파병한 군인들 봉급 떼먹었다는 소문까지 있었는데, 공개해 놓고 보니까 봉급 떼

먹은 흔적도 없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공개하고 나면 별거 아닌 것을,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우리나라의 지성사회가 이런 데 있어서 먼저 모범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 문** ● 고3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현실적으로 특목고와 일반고, 그 다음에 대도시와 농어촌계 학교 간의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런 점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대통령** ● 우리가 국가 제도를 운영할 때는 당장의 답답함, 또 소수의 답답함도 다 돌봐야 하지만 크게는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내다보고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학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답답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또 세칭 일류 고등학교라고 하는 데 다니는 학생들의 어머니들은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교육의 미래를 봐서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드린 것입니다. 사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많이 부딪치고 있는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좀 불편하더라도 따라 주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보다 높은 교육 목적, 교육 결과에 있어서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육의 결과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교육의 결과가 계층을 고착화시키지 않도록, 교육이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신분 상승,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교육이어야지 그걸 자꾸 막아 버리는 교육이 됐을 때 우리 사회는 나중에 하나로 갈 수 없고, 결국은 두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좀 참으시고요.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욕심을 좀 줄이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안 가도 아드님께서 따님께서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우 성실하고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크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기여, 헌신성이라 할까 책임, 의무 이런 것을 뚜렷하게 하면서 열심히 살면 서울대학교 안 나와도, 연대 고대 안 나와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사회가 계속 사람들을 불안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도 인사를 해 보지만 역시 서울대·연대·고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대학 출신들, 지금 쟁쟁한 자리에 다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 장관 하는 분은 국세청장 했는데, 국세청장 하고 청와대 혁신수석 하다가 거기서 또 일 잘해서 행정자치부장관 갔다가, 거기서 또 일 잘해 자기 임기도 못 채우고 건설교통부로 또 발탁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성실하고 항상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끊임없이 불편을 해소해 나가려는 창의적이고 창조적 자세, 도전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설사 대학교 좀 이름 없는 데 가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두가 지도자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의 삶도 짧이고 지도자 아닌 보통 사람의 삶도 짧습니다.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자를 일은 아니지요. 옛날에는 정말 낙오하면 못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먹고살 걱정 안 합니다. 아이들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좀 해 주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해 보니까 정말 힘들고요, 육만 얻어먹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길로 들어섰으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회피하지 않고 역사가 준 책무에 정면으로 대결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넓게 욕심을 줄이는 쪽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학교 입학 진학률이 84% 되는 나라에서 무슨 교육정책 내놓는다고 교육정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요구가 있는데 다 어떻게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보편적인 목표를 가지고 결국 크게 보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옛날에는 국민이 백성이었습니다. 백성이 자각해서 시민으로 성장하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된 것이지요. 이제 제왕이나 일반 국민이나 가진 권리가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배와 속박의 관계 속에서 고통 받는 일들은 거의 없지요. 이제 시민이 주권자죠. 주권자로서 역량을, 지도자에 가까운 역량을 갖추어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 민주주의가 아주 성숙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민은 공공의 이익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이익도 중요한 것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무와 책임도 다 함께 할 줄 알 때 우리 사회가 모두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내 자식을 일류 대학교 보내고 싶고, 누구라도 우리 대학이 좋은 아이들 뽑아서 또 일류하고 싶고, 같은 값이면 좋은 아이들을 뽑으면 가르치기 쉽죠. 쉽게 일류 대학이 되고 싶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모자라는 사람도 뽑아서, 힘이 들더라도 뽑아서 인재를 만들고,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식'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평등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의지하고 돕고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도록 어른들이 지도해 줘야 돼요.

오늘날 '서울대·연대·고대' 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 엘리트들 배출해 온 학교이고, 지금도 엘리트를 배출하고 있는 학교인데 이 엘리트 교육 기관이 자꾸 내 학교만 좋은 학생들 뽑아서 쉽게 일류 학교가 되겠다고 자율이라는 이름하에 본고사를 주장했을 때 결국 우리 사회가 힘 있고 잘된 사람만 점점 더 잘되고, 힘없고 약한 사람은 점점 더 낙오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더불어 함께 가고, 사회 갈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가는 사회를 구상해야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가 될 수 있고 경쟁력 최고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교육제도도 점점 더 개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들이 지금 점차 특성화하고 있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학이나 넣어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자기들 먹고사는 것뿐만 아니고 세계 일류의 인재가 되는 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공부는 또 자기가 하는 것이고요, 너무 그렇게 조그만 차이에 급급해 하지 말고 세계를 크게 내다보고 그렇게 배포 있게 해 나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되면 우리 아이들 다 함께 잘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카타르에 다녀왔는데, 카타르의 정유 공장 짓는 현장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정유 공장 원청을 받았어요. 원청을 받아서 6억 8천만 달러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6,500억 원짜리 공사라는 것이지요. 한국 사람 180명, 외국인 노동자 3천 명이 컨테이너 같은 숙소를 만들어 놓고 맹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탱크 위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들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죠. ‘저 사람 한국 사람이 맞느냐?’ 이러니까 ‘흰 모자 쓴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흰 모자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1970년대 중동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필리핀 기술자 밑에서 파란 모자 쓰고 막노동 비슷한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고 높은 자리에서 외국 노동자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 지휘하는 사람 중에는 일부 파란 모자 쓴 사람보다 재능이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경우에 따라서이지만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한국의 기술자니까 그런 흰 모자를 써야 하는 겁니다. 흰 모자 당당하게 쓰고 지휘하거든요.

그 공사를 맡았다는 것도 한국이 지금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은 계속해서 성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좀 이름 없는 대학교 나와도 마음먹기에 따라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지도자가 되고 최고 기술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아닌 곳이라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쟁은 있어야 되지만 지금보다 조금 낮은 경쟁으로도 충분히 한국은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